

News

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업종부터 확대한다

이데일리

금융위원회,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서 규정한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 제한 조항 개정 전 하위 법령부터 우선 바꿀 것으로 예상
첫번째 과제가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해석을 유연하게하고 하위 규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수요 해소할 것... 전업주의 규제도 동 방법으로 우선 완화

5대 은행 신용대출 평균금리 5% 일제히 넘겼다

아시아경제

5대 시중은행의 은행별 신용대출 평균금리 일제히 5% 넘겨... 신한 5.57%로 가장 높아... KB 5.39%, 하나 5.14%, 농협 5.05%, 우리 4.90%
1~2등급도 신용대출 받을 때 4.01~4.75% 금리 적용... 주담대와 비교되는 수준... 향후 신용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할 전망

우리금융, 3000억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전자신문

우리금융지주, 3,000억원 규모 원화 신종자본증권 발행 성공... 수요예측에서 신고금액 2,100억원보다 많은 수요 몰려...
BIS비율도 약 15bp 상승할 것으로 예상... 5년 후 중도상환 가능한 영구채로 발행금리는 4.99%로 결정

KB금융 "배당성향 30% 달성...이후엔 자사주 매입·소각"

서울파이낸스

KB금융, 실적발표 컨콜에서 배당성향을 목표치인 30%까지 단계적으로 올린 후 자사주 매입 및 소각전략에 초점 맞추겠다는 계획 발표
2분기 배당금 주당 500원 결의,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소각 계획 발표... 올해 순이익이 작년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작년보다 배당금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언급

보험사, 주담대 금리 6% 육박... 교보 5.9%·한화 5.7%

머니S

한화생명, 아파트 주담대 금리(변동금리형·분할상환방식) 4.22~5.77% 기록해 6월보다 상승...삼성생명, 상단 0.4%p 상승
손보사들 중에서는 농협손해보험이 이달 4.65~4.89%로 금리 끌어올려... 업계 관계자는 7월에는 반대로 금리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

생보사 재보험 부담 '눈덩이'...상품 재편 '그림자'

데일리안

생보업계, IFRS17 도입 대비해 상품 포트폴리오 짜는 과정에서 확대된 재보험 지출이 또다른 부담 요인 될 수 있다는 우려... 1년 새 2,000억원 가까이 증가
신한라이프생명, 재보험 비용으로 2,942억원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436.7% 급증... 삼성생명, 1,511억원... 그럼에도 재보험 수익은 3.1% 감소한 5,541억원에 그쳐...

‘첨첨산중’ 국내 소수점 주식 매매, 도입 문턱서 ‘세금’ 암초 만나

이투데이

기획재정부, 소수 단위 주식에 대해 어떤 세금 적용해야 할지 검토 중... 소수점거래 수익증권의 실질이 주식이란 점 때문
실질적으로 0.23%만 내도 되는 증권거래세를 적용해야 할지 금융투자세를 적용해야 할지 고민... 예탁결제원은 소수점거래 지원 시스템을 9월 정식 오픈 예정

해외주식 경쟁력 강화하는 NH투자증권...미국 장외거래 서비스 개시

아시아투데이

NH투자증권, 오는 8월부터 미국주식 장외거래 서비스 신규 제공... 매매가능종목은 OTC시장 내 130여종목으로 수수료는 0.5%
동사 올해 1분기 외화증권수탁수수료는 19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 키움증권과 하나증권은 이미 미국 장외주식 거래 서비스 개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